

碩士學位論文

濟州社會의 近代化에 따른 住宅 樣式의
變化에 關한 研究

- 해방이후부터 1970年代의 住宅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泰 一

111330

濟州大學校 產業大學院

建設環境工學科

金 好 善

2001

濟州社會의 近代化에 따른 住宅 樣式의 變化에 關한 研究

- 해방이후부터 1970年代의 住宅을 中心으로 -

指導教授 金 泰 一

이 論文을 工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年 6月 日

濟州大學校 產業大學院

建設環境工學科

建築工學專攻

金 好 善

金好善의 工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1年 6月 日

委員長 印

委 員 印

委 員 印

目 次

Table Contents	ii
Figure Contents	iii
Summary	vi
I. 序 論	1
1. 研究의 背景과 目的	1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2
II. 濟州社會의 特性과 時代區分	4
1. 既存 研究에서의 時代區分	4
2. 濟州社會의 近代化와 時代的 區分	5
III. 1950年代 混亂期의 住宅	10
1. 亂民住宅	10
2. 厚生住宅(再建住宅)	15
IV. 1960年代 安定期의 住居	19
1. 4.3 原住民 復歸 住宅	19
2. 三安式 住宅	25
V. 1970年代 成長期의 住居	29
1. 住宅改良 事業	29
2. 聚落地區改善 事業	33
VI. 結 論	38
참고문헌	41

Table Contents

Table 1	An division of Korea's Modern Architecture	4
Table 2	A Statistics Table of Buildings Constructed In Je-ju	6
Table 3	The Statistics of The Jeju-do's development	8
Table 4	The change of housing type from 1945's to 1970's	38

Figure Contents

Fig. 1	A Statistics Chart of the Je-ju island Population	7
Fig. 2	A View of Rebels' Life	10
Fig. 3	An inside view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11
Fig. 4	An inside view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11
Fig. 5	An inside view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12
Fig. 6	An outside view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12
Fig. 7	An outside view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12
Fig. 8	A Front Elevation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13
Fig. 9	A Side Elevation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13
Fig. 10	Floor plan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14
Fig. 11	An side plan of Welfare House	16
Fig. 12	An outside view of Welfare House	16
Fig. 13	An outside view of Welfare House	16
Fig. 14	An outside view of Welfare House	17
Fig. 15	A 1st floor plan of Welfare house	17
Fig. 16	A front elevation of Welfare house	17
Fig. 17	A side elevation of Welfare house	18
Fig. 18	A site plan of wall arounded 4.3 rebel's village	20
Fig. 19	A site plan of wall arounded 4.3 rebel's village	20
Fig. 20	A Section of wall arounded 4.3 rebel's village	20
Fig. 21	A plan of temporary house for rebels	20
Fig. 22	A view of the wall for the rebel's village	21
Fig. 23	A view of the wall for the rebel's village	21
Fig. 24	A hole to see the enemy	21
Fig. 25	A illustration of the Je-ju Sin-bo 1963.1.4	22
Fig. 26	Lcation of Return-supporting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 matte constructed as the 1st project	23

Fig. 27	A celebration of picture of Moving to Return-supporting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matte.	24
Fig. 28	A Site Plan of Return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matter.	24
Fig. 29	An outside view of Return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matte	24
Fig. 30	A front elevation of Return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matte	25
Fig. 31	A side elevation of Return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matte	25
Fig. 32	A 1st floor plan of Return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matte	25
Fig. 33	A celebration picture of completion buildings	26
Fig. 34	The church that the type of sam-an house	26
Fig. 35	The camp that the type of sam-an house	26
Fig. 36	A building process of the Sam-an type house	27
Fig. 37	A building process of the Sam-an type house	27
Fig. 38	An airscape of Text house studied by Korean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28
Fig. 39	An outside view of the Sam-an type house	28
Fig. 40	Sam-an type house for one generation	28
Fig. 41	A side elevation Sam-an type house for one generation	28
Fig. 42	Sam-an type house for two generation	28
Fig. 43	A side elevation Sam-an type house for two generation	28
Fig. 44	Reformation of house's roof	29
Fig. 45	The site plan	30
Fig. 46	The arrangement plan	30
Fig. 47	The floor plan	31
Fig. 48	A statics of house reconstructed	31
Fig. 49	Before Plan of house reconstructed	32
Fig. 50	After Plan of house reconstructed	32
Fig. 51	A front elevation of house reconstructed	32
Fig. 52	A side elevation of house reconstructed	32
Fig. 53	A outside view of house reconstructed	32
Fig. 54	A statics of improvement in village's structure	33
Fig. 55	Plan of improvement Yong-He village's structure in Sa-Ge-Ri	35

Fig. 56	Plan of improvement Shin-Hyung village's structure in Shin-Chang-Ri	35
Fig. 57	An siteplan of house in improvement village	35
Fig. 58	An airscape of house in improvement village	35
Fig. 59	A front elevation of house in improvement village	36
Fig. 60	A side elevation of house in improvement village	36
Fig. 61	A 1st floor plan of house in improvement village	36

A Basic Study on Trait of Modern Housing in Cheju
-With Modern Housing of 1945s~1970s-

Kim, Ho-Sun

Department of Construction and Environment Engineering
Graduated School of Industry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Tae-II

Summary

Residence is very related with society and culture and human living. Without exception, housing in Cheju has been changed by natural, social and cultural factors. Development in Cheju was started on May 1961 and era of 1945s and 1970s was period of confusion and same time period toward modernization. In this during of social confusion and modernization, various house were built in Cheju.

But unfortunately study with regards to house of 1945s and 1970s has not been proceeded and also its data were not enough to study.

This study is based to analyze house type and spacial trait with social change during 1945s and 1970s.

This study, for searching what kinds of house were built and what's trait, depended on basic data like「Cheju-do」published by Cheju Province, newspaper's articles and Korean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nd also measured the existing houses and heard more exact explanation from the resident.

Although roof type and wall material was modernized, most of houses seems to be built on traditional house plan of Cheju. It is necessary for more exact study to get more data. And also preservation of existing houses is proposed. Figure

Contents

I. 序 論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모든 건축물들은 그 지역의 특수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 주거라는 것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인 산물인 동시에 인간생활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정주는 인간, 장소, 시간이란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이루어 지게되며, 그 곳에 사는 주거자의 생활 및 자연과 경제, 문화현상에 의한 주거장소의 특성 그리고 시대 및 생활변화에 밀접하게 관련을 가진다.

주택 형태 또한 단순히 물리적 요인이나 단순히 어떤 하나의 인과적 요인의 결과가 아니라, 광의로 보여지는 모든 범위의 사회적 문화적인 결과이다. 그러므로 주택의 형태는 기후 조건, 구조방법, 유용한 재료, 기술,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등 종합적인 영향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

제주도 주거건축에 있어서도 모든 다른 건축물에 있어서처럼 제주도의 자연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받아 오면서 변화되어 왔다. 생활환경이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아래 위치한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른 독특한 문화와 생활환경을 형성해 왔으며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의 바탕위에 주거환경도 제주도의 초가라는 독특한 형태의 주거공간에서 생활하여 왔다. 그리고 육지와는 구별되는 특유의 가족제도에 기인한 마당을 중심으로 한 안거리, 밖거리의 2분적 공간분할의 주거형태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45년 해방이후의 제주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제주도는 1946년 행정자치구역인 道로 승격되었고, 이후 50년대까지는 예산의 취약, 행정기구의 미비, 좌·우 파의 대립, 4·3사건의 발발, 이에 따른 이재민과 6·25사변으로 제주도로 피난 온 난민들과 매년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계속 되었다.

본격적인 제주의 근대화는 1961년 5·16군사정권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의 개발은 5·16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에 최초로 아스팔트 도로가 건설되고,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1970년대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제주개발을 두고 물의 혁명, 길의 혁명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였다.

제주지역에서의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는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불안정한 시기였으

며 동시에 근대화로 이행해 가는 변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의 변화과정에서 다양한 주택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4·3사건, 6·25사변과 같은 큰 사회변동 이후의 주거건축의 변화에 관한 조사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관련자료도 미비하거나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거건축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나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제주도 주거건축이 형태에 있어서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던 1945년을 전후로 하여 그 이후의 주거건축이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에 대한 자료의 조사 정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잊혀진 시기, 공백의 시기이기도 한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제주지역의 근대화라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혹은 일시적으로 건축되었던 주택 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둔 것으로 관련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건축의 사회적 배경과 건축 형태적 특징 파악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음 단계의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정리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2. 研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는 제주도의 주거건축의 변천과정에 대해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각 시대별 특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시대적 구분을 1945년 해방 이후, 4·3사건이나 6·25동란을 거치면서 전통민가들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한 주택양식을 기준으로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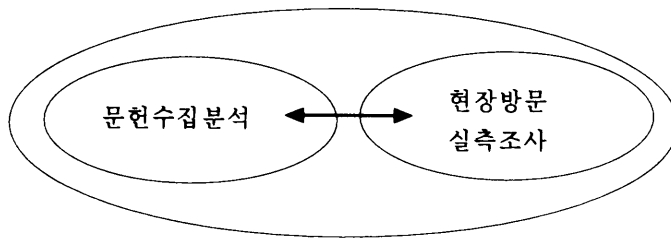
- 1) 4·3 사건의 발발, 6·25동란 등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인 1945~1950년대
- 2) 5.16정부 수립 후 사회가 안정되고 또한 정치적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던 1960년대
- 3) 좌절과 혼란의 연속이었던 40-50년대를 넘기고 정부의 관심아래 제주도 개발과 새마을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1970년대

5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의 주택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또한 그 당시의 기록들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자료의 정리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가장 사실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언론기관의 신문 자료와 행정기관의 간행물,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수집에 있어서는,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각 시대별 사회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주택에 대해 그 당시의 제주도의 간행물 「제주도」, 신문, 잡지, 논문, 대한 주택공사 관련자료 등을 통한 기초적인 문헌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아울러 현존하는 건축물에 대한 실측 조사와 현 주민들로부터의 증언 등을 토대로 주택의 형태 및 공간적 특징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I. 濟州社會의 特性和 時代區分

1. 既存 研究에서의 時代區分

기존 연구에서의 근대건축에 대한 시대구분은 연구자의 연구방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나, 송을(1992)은 1920~1945년까지를 근대건축의 기점¹⁾으로 보았고, 이안(1992)은 윤일주와 조영무의 시대적 구분을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 측면과 이에 따른 건축의 발달을 기준으로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²⁾.

Table 1 An division of Korea's Modern Architecture

시대구분상의 의미	연도
한국 전통 양식의 건축	- 1868
근대 문물의 이식기	1869 - 1919
근대적인 건축기술의 도입기	1920 - 1930
근대적 건축의 절충시기 해방 이전	1931 - 1945
근대적 건축의 절충시기 해방 이후	1945 - 1951
한국근대건축기 - 전후 복구 사업기	1952 - 1960
한국근대건축기 - 초기 경제 성장기	1961 - 1970

이안은 1952~1961.5.16까지의 시기를 전후복구기간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시기는 한국 경제는 원조자금에 의한 복구가 이루어졌으며 건축재료 면에서는 콘크리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이 철근콘크리트 구조였다.

아직 구조체가 외장표현으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았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민간정부의 혼란기로서 건축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1961.5.16~1970년까지를 경제발전기로 규정하였다. 이 시기를 경제성장의 배경으로 근대건축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구조체가 외장으로 표현된 노

1) 송을,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논문, 1992, pp.14~16
 2) 이안,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석사논문, 1992, pp.2~3

출콘크리트, 커튼월을 예로 들 수가 있다.

또한 1960년대 중반부터는 건물의 대형화가 이루어졌다. 한국 근대 건축의 절정 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되는 시기로 규정하였다.

2. 濟州社會의 近代化와 時代的 區分

일반적으로 근대 혹은 근대화라는 용어는 전근대에서 근대로 바뀌는 과정과 결과를 가리키는 것이며, 서구의 17~18세기 역사가들이 고대, 중세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근세」에서 유래된 것으로, 시간적인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 의미로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³⁾.

본 논문에서는 사회, 경제적 의미로서의 근대 혹은 근대에 초점을 두어 시대적 구분을 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의미의 근대는 봉건적 생산방식에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변화, 그리고 생산과정의 분업화와 사회적 기회의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근대화 시기를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5.16혁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발전을 주요 목표로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학계에서도 이때부터 근대화가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문화 변동, 도시화, 서구식 근대교육, 사회 분화 등도 196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추진된 근대화 작업과 깊은 관련을 가지며 발달하였다⁴⁾.

Table 2는 1945년~1990년대의 사회의 주요변화와 인구, 가구 수 등 지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대적 구분을 전통적 사회에서 산업화, 도시화 체제로 전환되어 가는 해방이후부터 각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는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의한 사회전반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또한 주거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봄으로서 사회의 어떠한 특징적인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Fig. 1은 1777~1800년(李朝正祖)부터 1995년까지의 제주지역의 인구 구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⁵⁾. 제주지역의 인구구조는 1900년대 이전만 하여도 10만 이하였

3) 웅진출판편집주, 「웅진학습백과사전11」, 웅진출판, 1988, p.82

4) 웅진출판편집주, 「웅진학습백과사전11」, 웅진출판, 1988, p.83

5) 1777년~1960년의 인구는 우락기, 「大韓地誌1」, 제주도, 1965, pp.104~105의 자료를 인용하였고, 1970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음.

Table 2 The Statistics of the Jeju-do's development

	1945~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시대구분	혼란기	안정기	성장기	발전기	모색기
주요사회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10.28 제주도에 미군정청 설치 - 46. 8. 1 濟州島가 전남에서 분리 道制로 승격 (2군1읍12면) - 48. 4. 3 4.3사건 발생 - 50. 6.25 6.25동란 발발 - 50. 7. 16 제주, 성산, 한림항으로 1만여 피난민 쇄도 - 55. 9. 1 제주시, 시승격 업무개시 - 59. 8.21 제주시 신청사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 1.15 부, 일반주택 사업에 의해 제주도 에 주택 천동 배정 - 60. 4. 15 도의사당 준공 - 62. 6. 9 도, 재건국민운동지부, 4.3사건 이재민 원주지 복귀 주택 제1차 년도 사업기공식 - 62.10.17 제주관광호텔 (현 제주 하니호텔) 기공 - 63.4.16. 한림천주교회 이시돌 재단에 의해 사료혼합공장 기공 - 63. 7.23 제주 시민회관 기공식 - 63.10.11 제주-서귀간 횡단도로 (5.16도로)개통식 - 64. 3.21 제주도 종합 건설계획심의회 발족 - 64. 7. 3 제주시민회관 개관 - 67. 4.20 여승생 용수, 성판악 간이급수시설 공사 등 제주도 수자원개발 기공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3.20 도, 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지침 마련 - 70. 4.10 제주시, 탐동해안매립 공사착수 - 72. 1.20 도, 새마을 건설 계획 확정 - 72. 2.18 시멘트 등 건축 자재값 폭등 - 74. 2.17 제주KAL호텔 개관 - 74. 5.21 도, 시멘트·철근 등 주요 건축 자재의 지방 기준 가격을 고시 - 77. 2. 5 신제주건설계획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3.12 도청, 신제주 신청사로 이전 - 81. 7.1 서귀읍, 중문면 합병 하여 서귀포시로 승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 4. 2 政府, 총리실 직속 으로 제주개발 추진위원회 설치 - 94. 6. 2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확정
인구수	1955 : 288,801명	1965 : 326,405명	1975 : 412,021명	1985 : 488,300명	1995 : 519,394명
주택수	주택수 : 가구수 : 52,816	주택수 : 62,385 가구수 : 71,366	주택수 : 가구수 : 92,202	주택수 : 80,511 가구수 : 118,144	주택수 : 110,277 가구수 : 146,625

다. 그러나 192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 20만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가 있었는데, 한일합방 후 식민지정책의 수단으로 조선총독부가 토지측량을 실시하여, 제주도에서도 1915년에 측량이 완료되고 1916년에 토지소유자와 지적도를 고시하였다⁶⁾. 이후, 조선총독부는 일본인들에게 수산업 혹은 임산물 가공업, 은행업, 전기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 많은 일본인들이 제주도에 유입되었고, 또한 이와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로 유입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인구는 1930년대까지 큰 변화 없이 일정한 인구가 지속되다가, 1950년대에 들어 다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 6.25사변 등으로 인한 피난민의 유입 그리고 지역개발 등에 의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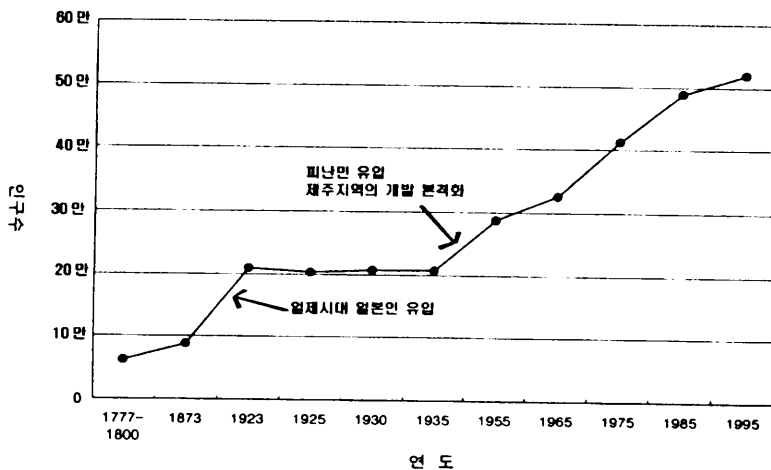


Fig. 1 A Statistics Chart of the Je-ju island's Population

Table 3은 1967년부터 1980년까지의 주택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⁷⁾.

Table 3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비교적 현대적인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증가가 1960년대에 이루어져 오다가 197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

6)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제주문화, 1987, p.210

7) 1967~1974년까지의 자료는 「광복제주 30년」, p.134에서 인용하였고, 1980년의 통계자료는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으며, 이후의 통계조사에서는 주택의 지붕재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지역의 관광지 개발, 그리고 제주도의 종합개발10개년 계획 등이 추진되는 등, 1960년대부터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던 근대화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나, 1980년대의 신제주 건설, 대단위 집합주택의 건설, 주택의 고층화하는 등 더욱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 대규모화하여 1970년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와 주택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으나, 대체로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를 포함하여 제주지역이 근대화해 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4.3항쟁의 발발, 6.25 피난민과 수재민의 제주도 유입에 따른 사회변화, 그리고 정치적 맥락에서의 제주의 관광지 개발과 자본의 유입, 인구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도시화와 주거양식의 변화 등 제주는 많이 변화되어 왔고, 변화되도록 강요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Table 3 A Statistics Table of Buildings Constructed In Je-ju

년 도	합 계	철 근 콘크리트	조적조	목 조			기 타
				합 석	기 와	초 가	
1967	64460	359	1998	4893	24432	32778	3031
1968	65633	887	959	3682	4091	52014	73
1969	67152	1051	1285	7853	3935	51741	1287
1970	70595	1848	3139	7953	4836	51819	100
1971	76120	2498	5541	-	5032	55578	7471
1972	75965	2950	7465	-	5548	53108	6894
1973	77960	3420	-	22464	3845	43978	4253
1974	79606	3562	-	27451	3908	40435	4250
1980	77095	9134	47071	2508	3044	14415	923

각 시대별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45~1950년대의 혼란기]

제주도는 1946년 행정자치구역인 [道]로 승격되었다. 이후 50년대까지는 예산의 미약, 행정기구의 미비, 좌·우 파의 대립, 4·3사건의 발발, 이에 따른 이재민과 6·25동란으로 입도 한 피난민들과 매년 연이은 흉작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계속되었다.

[1960년대의 안정기]

제주의 근대화는 1961년 5.16군사정권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60년대의 개발은 5.16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제주도에 최초로 아스팔트도로가 건설되고,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었으며, 이것은 1970년대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제주개발을 두고 물의 혁명, 길의 혁명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였다. 제주지역에 본격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도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좌절과 혼란이 연속이었던 40~50년대를 넘기면서 맞이한 60년대는 정부의 관심이 제주에 쏠리게 되면서 제주도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로 도로, 용수, 전력개발사업이 추진되었고, 관광개발과 중산간 개발사업이 본격화되었다.

[1970년대 성장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는 제주도를 관광지개발에 정책적 중심을 두어, 관광지로서의 제주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60년대와 70년대의 관광지 개발붐은 제주지역의 낙후성 탈피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개발 그 자체가 도민 주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타 지역 민의 자본에 의하여 주도된 것이었기 때문에, 계층간의 괴리감과 함께 건축의 지역성, 향토성 상실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안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마을 운동, 제주관광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는 등 60년대에 이룩한 개발의 범위를 한층 더 확대시켰다.

Ⅲ. 1950年代 混亂期の 住居

1. 亂民住宅

1950년에 발발한 6·25사변으로 전쟁의 위협이 없었던 제주에 많은 피난민이 유입하였다. 피난민들은 제주항, 성산항, 한림항을 통하여 제주도로 들어와⁸⁾ 각 지역으로 흩어져 피난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월에는 제주도 동부지구의 피난민이 2만명이나 수용되었고, 대부분이 군경가족과 일반피난민들로서 천막과 Barack건물에서 생활하였다(Fig. 2참조)⁹⁾.



Fig. 2 A View of Rebels' Life

전쟁이 끝난 후, 피난민을 위한 「난민귀농정착사업」을 1955년도에 시작하여 1959년에 종료되기까지 5년 동안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전쟁으로 인한 난민뿐

8) 「제주실록」, 제주도, p.56

1950년 7월중에 약 1만명의 피난민이 유입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제주 인구가 28만 명으로 상당한 피난민 숫자라고 할 수 있다.

9) 「제주시정 37년사」, 제주도, p.18

만 아니라, 4·3사건 등으로 인한 난민을 포함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제주도가 계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었다¹⁰⁾.

봉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였던 임홍종씨¹¹⁾는 난민 주택에는 육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대부분 거주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있다.

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우선 주택을 제공하였는데, 지역상황에 따라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건축하였다. 이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현재 봉개동 일대에 일부 남아 있는 주택이 주택형태와 내부공간을 고려한다면, 도시형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 난민주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2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세대별 구분은 합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각 세대간 외부 경계는 돌담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세대별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주택이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화장실은 외부에 두었다.



Fig. 3 An inside view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Located at Bong-gae, 1959)



Fig. 4 An inside view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Located at Bong-gae, 1959)

10) 제주신보, 1959.4.4일자 신문기사 자료

11) 4.3복구주택 봉개 조합장 지내던 임홍종씨의 증언(봉개동 1922-2번지, 1936년생)



Fig. 5 An inside view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Located at Bong-gae, 1959)



Fig. 6 An outside view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Located at Bong-gae, 1959)



Fig. 7 An outside view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Located at Bong-gae,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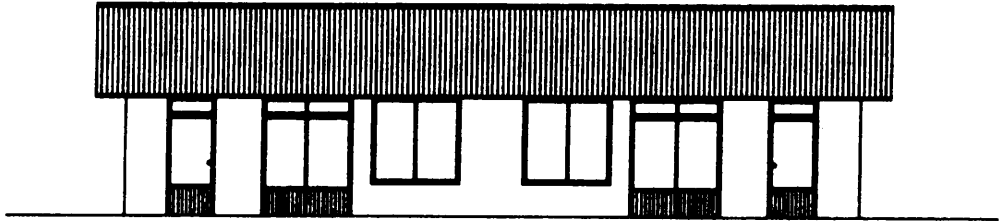


Fig. 8 A Front Elevation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Located at Bong-gae,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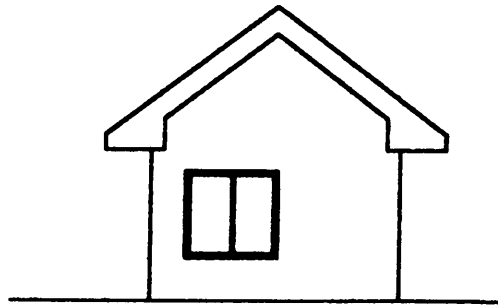


Fig. 9 A Side Elevation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Located at Bong-gae, 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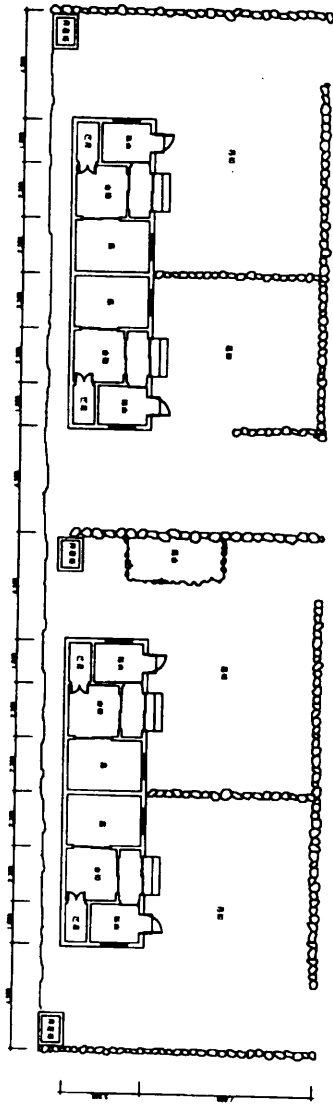


Fig. 10 Floor plan of Urban Type House
for The sufferers
(Located at Bong-gae, 1959)

또한, 각 세대는 독립된 마당과 우영 받을 가지고 있는 등 외부 공간은 기본적으로 제주의 주거공간을 답습하면서도 주택내부공간과 지붕형태, 마감재료 등에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현대적인 주택이라고 할 수 있었다.

2. 厚生住宅(再建住宅)

6·25사변 발발 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1953년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주택의 파괴된 것을 재건하고, 또한 월남한 피난민들이 증가하여 심각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주택건설에 총력을 기울였다. 주택건설을 포함한 전후 복구에는 미국과 UN의 원조가 큰 힘이 되었다. 미국의 원조는 해방 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왔는데, 1945년 해방 후 실시되었던, 미군정이 끝나고 이승만 정권이 성립되면서, 미국의 원조는 장기적인 원조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특히, 6.25사변을 계기로 E.C.A에서 S.E.C원조로 바뀌어 1953년까지 지원되었다. 또한, 전쟁중의 긴급구호물자제공 및 전후복구를 위해, UN이름 하에 CRIK원조, UNKRA원조 등이 제공되었다¹²⁾.

휴전협정 후에 실시되었던 미국의 원조는 FOA원조, ICA원조, AID원조, PL480원조 등으로 다양하게 지원되었다.

전후복구를 위해 미국의 주도로 원조된 재료들은 콘크리트블록, 프리캐스트콘크리트 등이었다¹³⁾.

그 당시 주택건설은 지금의 행정자치부에 해당하는 사회부가 주관하였는데, UNKRA(United Natio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¹⁴⁾의 원조를 받아 경인지역에 2,500호 전국 각도에 3,000호의 후생주택을 건설하였는데, 일명 재건축주택(再建住宅)으로도 불렸다. 제주도에서도 몰려온 피난민을 위해 후생주택을 건설하였다. 이와 같은 주택은 집 없이 생활했던 피난민들이나 4.3난민들로서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나, 물자 난이 심각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주택건설에 따른 잡음도 많았던 것 같다.

그 당시의 신문기사를 보면¹⁵⁾ 주택용 건축자재배급에 있어서 부정시비가 일어나거나, 보증금과 지방 유지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피난민들로서는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건설된 후생주택은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신문기사¹⁶⁾ 등의

12)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p.233

13) 송울, "한국근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박사논문, 1992, p.111

14) 한국의 경제부흥, 재건을 돕기 위해 1950년 12월 유엔총회의 결의로 창설된 원조기관으로 1958년에 해체되었다.

15) 제주신보, 1954.3.28일자 신문기사 참조

16) 제주신보, 1959.2.13일자, 신문기사 참조

기록으로 보아, ICA원조에 약 20호 정도의 주택이 일정한 부지를 구획하여 집단적으로 건설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제주도에 남아있는 후생주택은 몇 채 되지 않으나, 삼도1동에 남아있는 후생주택의 배치(Fig. 11)를 보면, 제주도의 전통적인 배치방식과 달리, 일정한 토지를 바둑판 모양으로 구획하여, 집단적으로 건축하였다. 1가구 당 건설되도록 구획된 부지의 면적은 254~275M² 정도였다. 건축물의 규모에 있어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자료20년 사를 보면, 9평 규모가 건설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삼도1동에 남아 있는 후생주택(Fig. 14)을 조사한 결과 9평과 18평 2종류가 건설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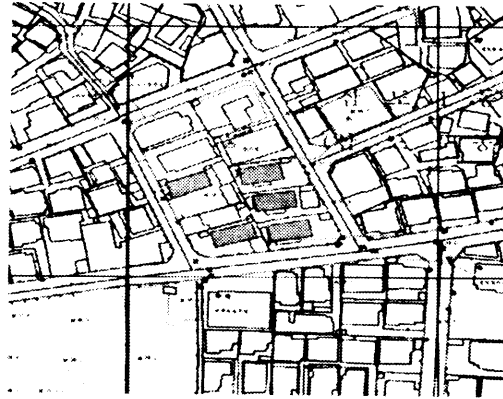


Fig. 11 An side plan of Welfare House
(Located at Samdo-1dong)



Fig. 12 An outside view of Welfare House
(Located at Samdo-1dong)



Fig. 13 An outside view of Welfare House
(Located at Samdo-1dong)



Fig. 14 An outside view of Welfare House
(Located at Samdo-I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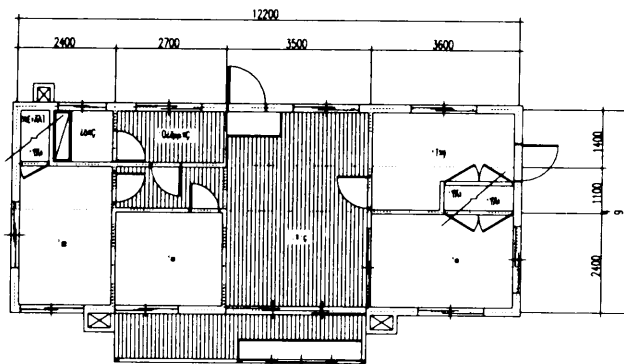


Fig. 15 A 1st floor plan of Welfare house
(Located at Samdo-I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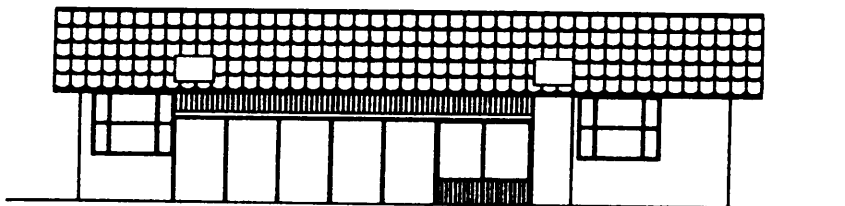


Fig. 16 A front elevation of Welfare house
(Located at Samdo-Idong)



Fig. 17 A side elevation of Welfare house
(Located at Samdo-1dong)

18평의 평면은 마루를 중심으로 방(3개)과 부엌(1개), 다용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화장실을 주택내부에 두고, 또한 화장실을 거쳐 욕실로 들어가는 서구식 평면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나(Fig. 15참조), 화장실이 재래식이어서 냄새가 나는 등 당시 제주실정에는 적합하지 않아 평면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⁷⁾.

구조는 흙을 구워 만든 블록¹⁸⁾을 쌓아 벽체를 구성하여 그 위에 회바름으로 마감하였다.

후생주택 건설은 대한주택공사가 직접 건설하기도 하였고, UNKRA로부터 건축자재를 제공받아 지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휴전협정 체결 후의 혼란한 시기였고,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주택건설에 있어서 불상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건축자재는 지방 구호위원회에서 배급하였는데, 피난민에 대한 건축자재 배급에 있어서 2만원의 보증금과 지방유지의 보증을 요구하는 등 피난민들로서는 불가능한 조건이어서 많은 불만이 있었으며¹⁹⁾, 대부분 유지들이 입주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후생주택을 건축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는 입주자²⁰⁾의 증언과도 일치하였다.

17) 후생주택건축 당시부터 생활하고 있는 이성주씨의 증언(삼도1동 1239-4번지, 1926년생)

18) 「대한주택공사 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p.208

연와조라 불리우며, 일종의 조적식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주택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사용된 흙벽돌은 흙(白土)과 시멘트 혹은 석탄을 혼합 압축하여 제작하였다.

19) 제주신보, 1954년 3월 28일자 신문기사 자료

20) 이성주(삼도1동 1239-4번지, 1926년생)씨의 증언에 따르면, 20년 상환 조건으로 180만원을 지원 받아 건축하였다고 한다.

IV. 1960年代 安定期의 住居

1. 4.3 原住民 復歸 住宅

4.3사건 발발 당시, 산사람들에 의하여 자주 습격 받는 일이 잦아지게 되어 마을을 요새화 하거나, 이들을 토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산간 마을에 대하여 소개령²¹⁾을 내려 해변마을로 이주하게 하는 등 주거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당시의 주거 형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존마을에 10尺내외의 축성을 하고 성문입구에 초소막을 세워 감시하는 형태의 마을에 거주²²⁾
- 2) 동굴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거주하는 형태
- 3) 소개된 마을 주민을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하여 관리하고 방어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촌²³⁾을 건설하여 거주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21) 제주실록, 제주도, 1977, 「4.3은 말한다Ⅱ」, pp.365~366

그 당시 소개령이 내려진 후, 백여개의 중산간 마을이 폐허가 되었고, 가옥이 15,000호, 35,000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22) 邊昇奎, 「濟州島略史」, 제주문화, 1992, p.226

23) 노형초등학교후원회, 「노형교육50년사」, 1998, p.63,

제주신보, 1955. 2.18일자 신문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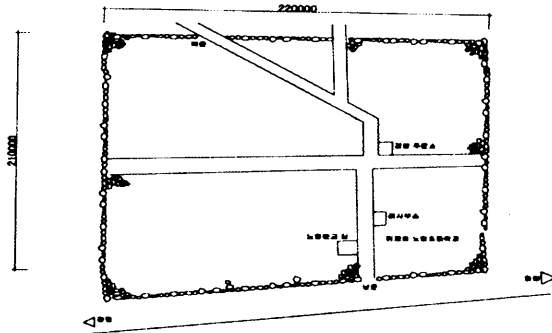


Fig. 18 A site plan of wall surrounded 4.3 rebel's village
(Located at No-Hyung-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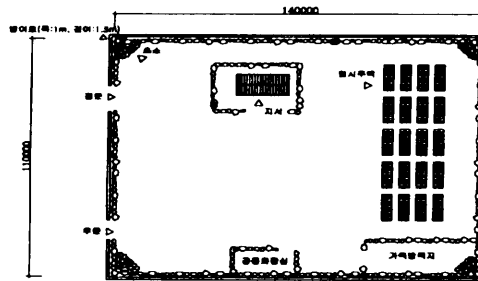


Fig. 19 A site plan of wall surrounded 4.3 rebel's village
(Located at sun-hul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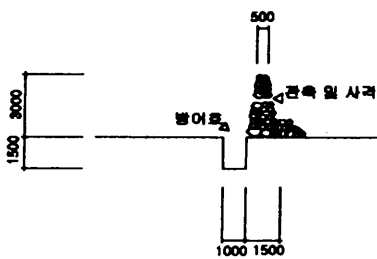


Fig. 20 A Section of wall surrounded 4.3 rebel's village
(Located at sun-hul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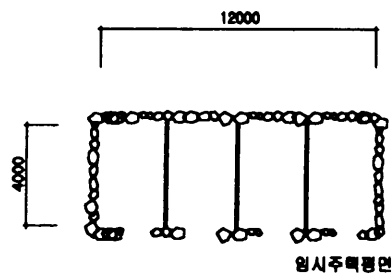


Fig. 21 A plan of temporary house for rebels
(Located at sun-hule-ri)



Fig. 22 A view of the wall for the rebel's village
(Located at sun-hule-ri)



Fig. 23 A view of the wall for the rebel's village
(Located at sun-hul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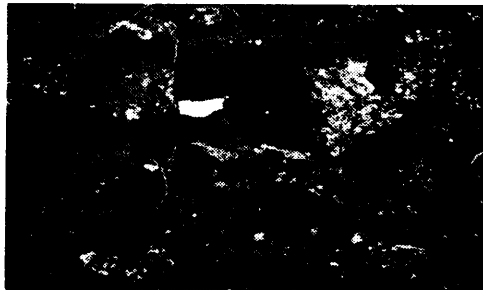


Fig. 24 A hole of the wall to see the enemy
(Located at sun-hule-ri)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 있지 않으나, 전략촌에 대해서는 몇 가지 관련문헌으로 남아 있고, 그 흔적지도 남아있어 그 당시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다.

산사람들에 대한 토벌이 끝나갈 무렵인 1949년 봄에 들어서 해변마을에 소개하여 있던 주민들에 대한 복구지가 정해져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 복구지가 전략촌이었다. 이 전략촌은 소개민을 수용하면서 통제하기 용이하고, 또한 산사람들과의 연계 차단 혹은 동조세력의 색출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하여²⁴⁾ 건설된 마을이었다. 건설부락 혹은 재건부락으로도 불리웠다.

전략촌은 불탄 집터의 울담이나 밭담을 등짐으로 저날라 축성하였는데, 성담 밑에 습격을 막기 위하여 폭 1.5m, 깊이 1.8m정도의 도랑을 파고 가시나무, 실거리나무 등으로 둘러쳤다. 현재, 전략촌의 크기는 노형동 정촌 마을은 220m×210m, 선흘

24) 숭실대학교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분단시대」, 제주 역사·문화기행, p.36

리 낙성동의 전락촌 흔적지는 140m×110m로써 사각경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배치 형태는 정문과 후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내부에는 지서, 단지형 임시주택, 가축방목지, 공동화장실, 초소 등이 있었다고 하며, 초소 하부에는 순번제로 대기하는 공간이 있었고, 상부에는 원두막형식으로 집을 짓고, 보초를 섰다고 한다.

임시주택은 집단주거형식으로 1동당 4세대 형식으로 막사 비슷하게 외벽은 돌로 쌓고, 내부 칸막이는 억세로 막았으며, 바닥은 고사리 등을 깔고, 지붕은 근처의 나무를 베어다가 간략히 틀을 짜고, 그 위에 억세를 덮었다고 한다.

임시 주택 내부공간 한편에는 눕고, 다른 한편에는 밥을 해먹으면서 살았다고 한다²⁵⁾.

이곳의 주민들은 6.25동란이 끝나고도 원주지로 복귀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마을에 입주하곤 하다가, 1960년이 들어서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혁명정부도 지역현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4·3사건 해결이었다. 이전까지는 일부 산사람들의 소탕 등의 이유로 원주민 복귀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건축자재의 제공이나 일부개조에 의한 입주형태의 복귀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인다²⁶⁾.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주지 복귀 사업」을 실시하여, 1948년 4·3사건으로 인하여 재화를 만난 중산간 지대 산재부락 주민들에게 잃었던 옛 농토에 집을 지어주고 당분간의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소개령에 의한 장기간의 물적 심적 피해를 보상하려 하였다. Fig. 25는 1963년 1월 4일자 제주도의 도정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일주도로의 완성, 근대적 항구개발, 그리고 4·3 이재민 정착개간사업 등을 애니메이션으로 소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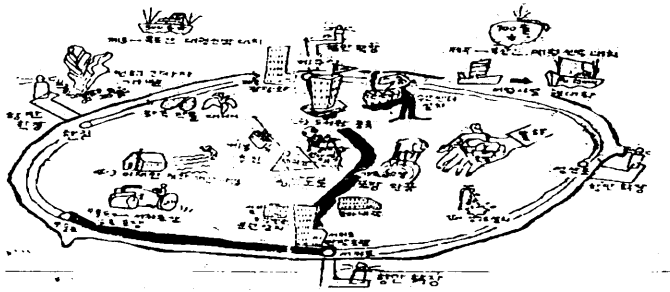


Fig. 25 A illustration of Jeju Sin-bo 1963.1.4

25) 김형조씨의 증언. (선흘1리 1200번지, 1922년생, 4.3당시 27세)

26) 제주신보, 1954.1.26일자 기사에 의하면 造水理 朱池洞에서 첫 역사적인 입주식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호를 건설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의 신문기사²⁷⁾를 토대로 1차 사업에서의 주택 건설지 분포를 작성하여 보았다 (Fig. 26참조). 산북의 중산간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2차 사업에서는 800세대 건설의 분배에 있어서도 제주시 190호, 북제주군 320호, 남제주군 290호가 배정된 것으로 보아 상당수가 산북 지역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Fig. 26 Location of Return-supporting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matte constructed as the 1st project

당시의 지원내용을 보면²⁸⁾, 식량뿐만 아니라, 주택, 개간농지, 가축, 농사자금까지 지원하였는데, 주택의 경우는 1호당 25,000원(제2차 사업에서는 40,000원)을 지원하였는데, 그 당시 도민 1인당 소득이 30,658원(1965년 기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두고 「한라산 횡단도로 포장공사」와 더불어 혁명정부가 보여준 2대 영단(英斷)이라고 까지 표현하였으며²⁹⁾, 한경면 저지리에서 가진 첫 입주식(Fig. 27)³⁰⁾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요직들이 참석하는 등, 주민의

27) 제주신보 1962.6.10 및 1963.1.18일자

28) 「제주도」, 제주도 제9호, 1963, pp.57~58

29) 「제주도」, 제주도 제9호, 1963, pp.57~58

도 행정간행물 「제주도」의 자료에 의하면, 이재민중 원주지로의 복귀를 희망하는 4365세대(총 18,000명)의 이재민들을 위해서 복귀 2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1962년 9월에 남원읍 하례리에서 복귀주택 기공식을 올렸고, 이어서 1963년도에는 우선 제1차 사업으로서 808호의 복귀를 보게되었다. 제2차사업은 816호로 4월3일 조천면 와흘리에서 제2차복귀주택 기공식을 가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0) 제주신보 1962.11.13일자, 당시의 기사에 의하면, 역사적인 첫 입주식은 1962.11.11에 한경면 저지리 명이동(12호 건립)에서 가졌다.

지지와 협조, 그리고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여야 했던 혁명정부차원에서는 제주지역의 큰 아픔으로 남아 있던 4·3사건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 하였던 점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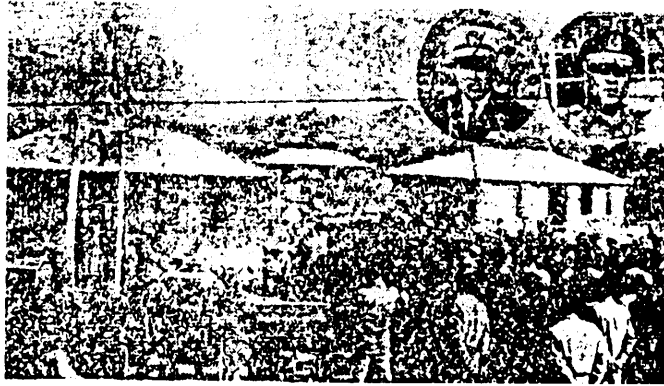


Fig. 27 A Celebration picture of Moving to Return-supporting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matte.

당시 신문에 게재된 입주식 사진의 주택형태와 비교해 볼 때, 봉개동 등 일부지역의 4·3 이재민 복귀주택은 거의 원형으로 판단되는데, 외부는 제주의 현무암으로 벽을 쌓고 목구조 양식의 트러스에 함석지붕이었으나, 현재는 함석 지붕 위에 스테이트로 지붕 개량되어 있으며, 내부 공간구성은 마루를 중심으로 방과 부엌이 놓아 기본적으로 제주 전통주거형식인 초가의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택의 규모는 보통 9~12평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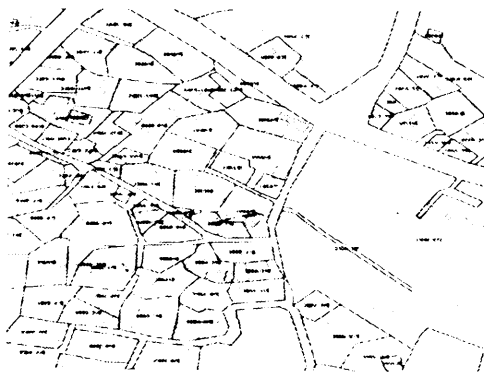


Fig. 28 A Site Plan of Return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 matter. (Located at Bonggae-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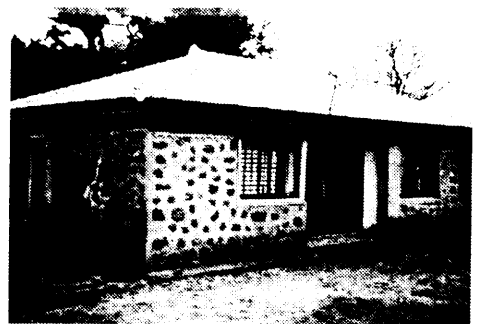


Fig. 29 An outside view of Return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 matte. (Located at Bonggae-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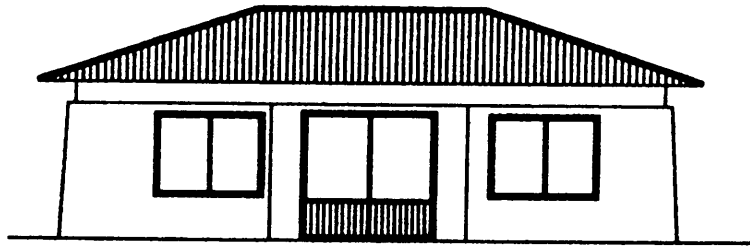


Fig. 30 A front elevation of Return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 matte.
(Located at Bonggae-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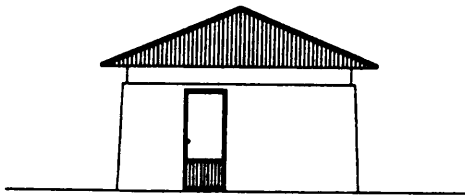


Fig. 31 A side elevation of Return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 matte.
(Located at Bonggae-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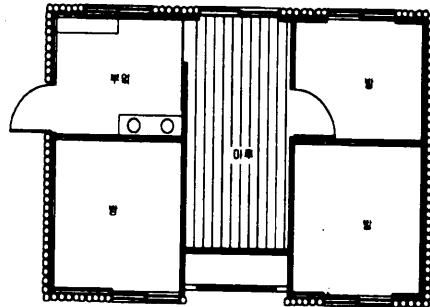


Fig. 32 Floor plan of Return House for The sufferers by 4.3 matter
(Located at Bonggae-Dong)

2. 三安式 住宅

공공기관에 의한 주택공급 이외에 개인에 의한 주택이 건축되기도 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당시 제주에서 선교활동을 하였던 J.P 맥그린치 신부(이시돌 성당)에 의하여 건축되었던 삼안식(三安式)주택³¹⁾이다. 삼안식(三安式)주택은 이시도레³²⁾식

31) 「대한주택공사 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p.362

32) 우락기, 「大韓地誌1」, 제주도, p.287

이시돌이라는 語義는 스페인의 성직자인 Isidore(1110~1170)로서 황무지를 개간하여 가

주택이라고도 불리워졌는데, 건설된 주택 수는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 같으며, 현재 이시돌 목장에 몇 호 남아있다³³⁾.

Fig. 33은 1970년 10월 15일 이시돌 목장에서 거행된 이시돌 농업기술연구원 및 차량종합지원정비공장 낙성식의 장면으로, 사진의 뒤쪽으로 공장으로 추측되는 삼안식 건축물이 보인다. 위쪽 사진은 낙성테이프를 끊는 장면으로 왼쪽에서 네 번째가 J.P 맥그린치 신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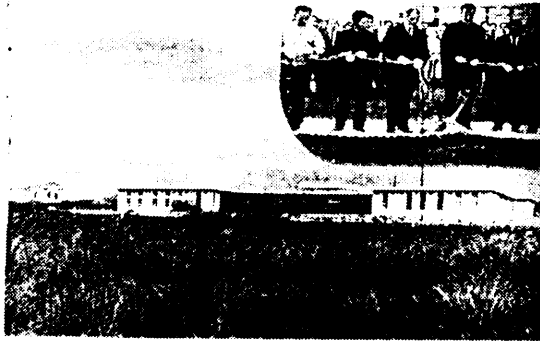


Fig. 33 A celebration picture of completion buil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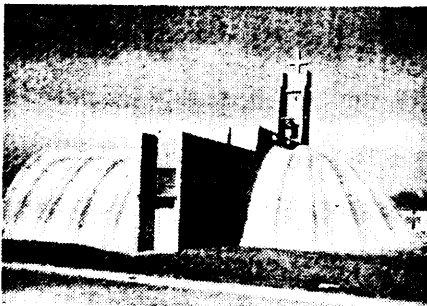


Fig. 34 The church that the type of Sam-an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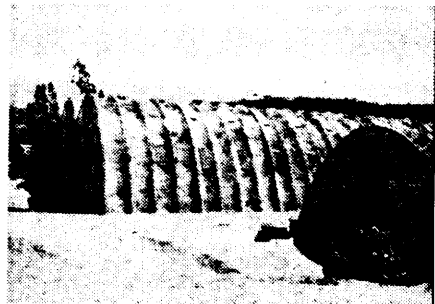


Fig. 35 The Camp that the type of Sam-an house

난한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의 노동력이 3인분에 해당함으로서 모두가 天佑神助라 하였다고 한다. 이를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대하여 농부의 수호성도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33) 이시돌 농업기술연구원 및 차량종합정비 공장 낙성식 장면. 왼쪽 뒤쪽에는 공장으로 추측되는 삼안식 건축물이 보인다. 위쪽 사진은 낙성 테이프를 끊는 장면으로 왼쪽에서 네 번째가 J.P 맥그린치 신부이다.

삼안식 주택의 구조는 물결모양의 아취가 연속된 형태의 쉘 지붕으로, 내부에 기둥이 없어 넓은 평면을 구성할 수 있어서 주택뿐 만 아니라, 군용 막사, 교회 등에 사용되었다.

우리 나라 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1962년에 저렴한 주택의 대량건설을 위하여 건축자재의 규격화 방안과 조립식주택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삼안식 주택(B형 주택으로 명칭)이었다. 그러나, 삼안식 주택은 각재 및 평철을 기본구조로 하였으며, 합판대신 삼베나 가마니 등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구조체를 제작하기 때문에 공법이 간단하고 특수기능공이 필요 없고 목재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균열이 발생하기 쉽고, 단열이 되지 않으며 곡면으로 인하여 창문 위치가 제한되어 채광과 환기면적이 적은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어 도입 개발되지 못하였다³⁴⁾.



Fig. 36 A building process of the Sam-an type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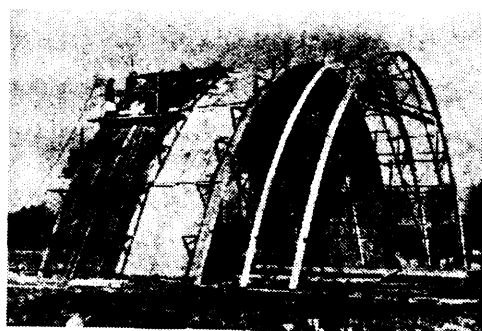


Fig. 37 A building process of the Sam-an type house

현재 남아 있는 삼안식 주택의 평면구조를 보면, 1세대용 주택과 2세대용 주택, 2종류가 건축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주택과 대한주택공사 20년사의 자료를 보면 건축물의 측면 즉 단변 방향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이시돌 목장에 남아 있는 삼안식 주택의 외관과 평면을 보면 건축물의 장변 방향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어 여건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1세대용 주택은 방 3개와 부엌이 있고 현관 홀을 중심으로 각 방에 직접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Fig. 40참조). 2세대용 주택은 방 1개와 부엌, 그리고 거실 겸 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면구조로 되어 있다(Fig. 42참조).

34) 「대한주택공사 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p.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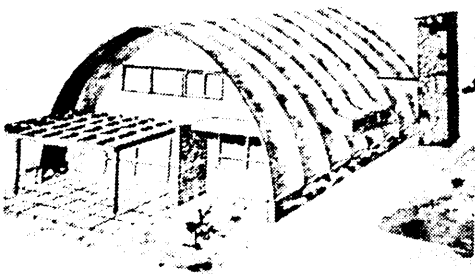


Fig. 38 An aircscape of Text House studied by Korean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Fig. 39 An outside view of the Sam-an type house (Located at an Isidol pas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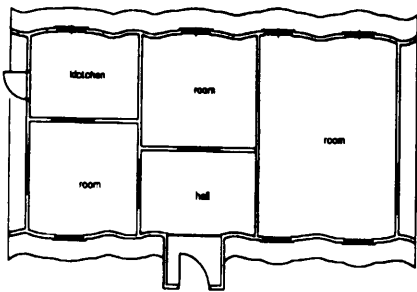


Fig. 40 Sam-an type House for One Generation (Located at an Isidol pas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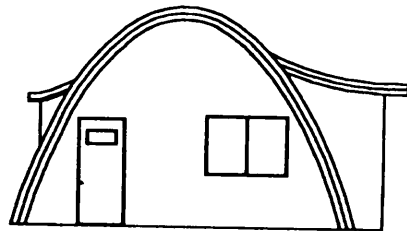


Fig. 41 A side elevation Sam-an type house for one generation. (Located at an Isidol pas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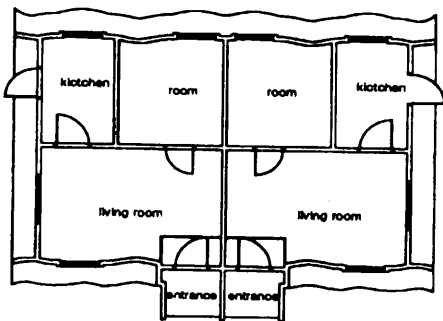


Fig. 42 Sam-an type House for Two Generation (Located at an Isidol pas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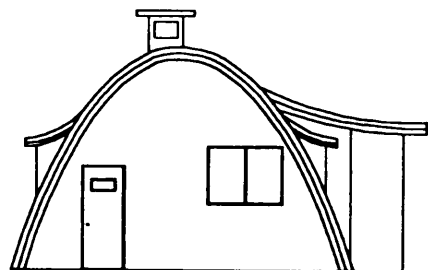


Fig. 43 A side elevation Sam-an type House for Two Generation (Located at an Isidol pasture)

V. 1970年代 成長期の 住居

1. 住宅改良 事業

제주도의 초가는 옛부터 자연발생적인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비위생적인 환경, 비능률적인 도로망, 노후한 가옥구조, 전근대적인 주거기능, 그리고 낡아서 퇴폐한 외관 등 미 개량된 요소를 개량하여 능률적이고 현대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촌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사업이 주택개량사업이다.



Fig. 44 Reformation of house's roof

이 사업은 제주도 전통주거인 초가의 단점 즉, 해마다 지붕에 이엉을 덮어씌워야 하는 번거로움과, 화재에 대한 우려, 불결한 노천 화장실 등을 개량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색과 본질이 유지되도록 향토경관을 살리는데 기본방향을 두어 계획되었다.

제주도에서 발행한 주택개량교본³⁵⁾ 기본지침을 인용하면, 크게 부지에 대한 고려, 배치계획, 평면계획, 외관과 내장계획, 색채계획, 정원계획으로 세분되어 진다.

첫째 부지에 대한 고려에 있어서 농촌주택인 경우 부지면적은 일조, 통풍, 방음, 방화, 경관, 위생, 작업공간 등을 고려하여 건축면적의 5~10배로 하며, 부지의 형태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 같은 정형인 것을 지향하지만, 부정형이나 경사지인 경우에

35) 「住宅改良教本」, 濟州道, pp.8~12

는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지정리를 한다. 그리고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로경계와 부지와의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될 수 있는 한 주출입을 해야하는 도로보다 부지를 높인다(Fig. 4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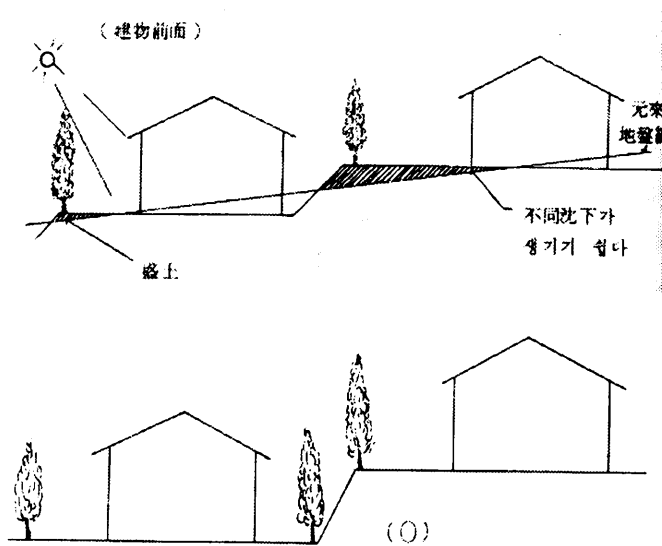


Fig. 45 The site plan

둘째 배치계획은 부속건물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불필요한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부지 내 공지를 한곳으로 집중시키도록 하며, 옥외 변소는 축사나 헛간 등 부속 건물과 하나의 건물로 건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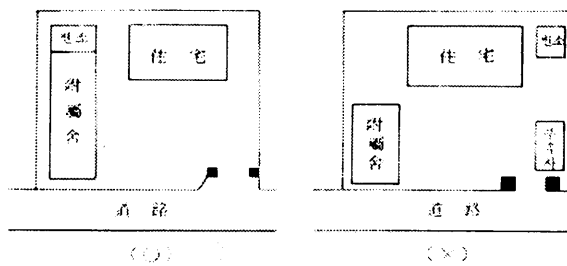


Fig. 46 The arrangement plan

셋째 평면계획에 있어서 평면형은 일자형으로 하며 각 실은 기능을 충족시키면서

양통 구조로 마루방을 두어 다용도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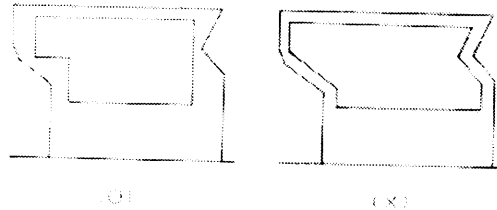


Fig. 47 The floor plan

넷째 외관과 외장 계획에 있어서는 지붕형태와 외벽을 중심으로 지붕의 경사, 외벽의 구조, 색채 등을 고려하여 제주도의 특성에 맞게 현대건축과 절충하여 계획한다. 먼저 벽면구성은 루바 등 장식벽은 건축물의 형태에 맞게 설치하나, 처마위로 돌출 되지 않게 하며, 개구부는 넓게 하여 개방감을 주며, 창의 크기는 가능한 동일 규격을 사용하여 통일성 있는 외관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지붕은 전통초가 지붕형인 모임지붕이나 방형지붕으로 하며, 지붕의 물매는 가급적 낮게 하고, 지붕재료로 제주송이 등을 사용하여 향토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주도의 주택개량 사업 통계³⁶⁾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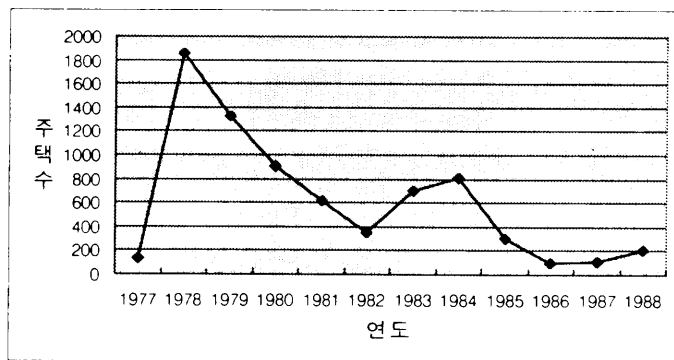


Fig. 48 A statics of house reconstructed

36)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 1981, p.57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 1984, pp.68~69

제주도, 「제주도 통계연보」, 1988, pp.68~69

Fig. 48에서 알 수 있듯이, 1977년에서 1988까지의 제주도 주택개량사업의 주택 수를 비교해 보면, 1970년대 후반에 중점적으로 제주도 주택개량사업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제주군 애월면 남읍리 1492번지 주택개량 사례조사 내용을 보면 기존 전통초가 4칸 집을 지붕개량, 굴목 및 일부 난간을 철거하고, 방 확장, 부엌 개량 등을 통해 주거생활의 근대화를 꾀하였다(Fig. 49, 50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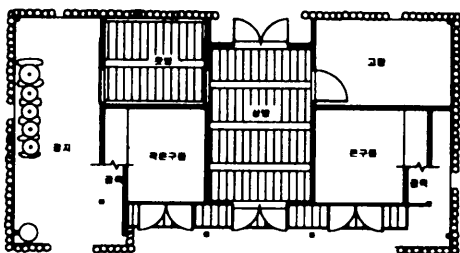


Fig. 49 Before Plan of house reconstru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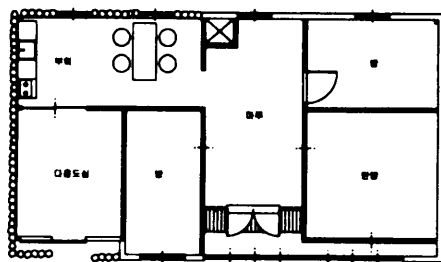


Fig. 50 After Plan of house reconstru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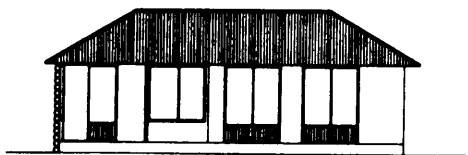


Fig. 51 A front elevation of house reconstruc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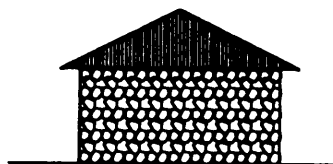


Fig. 52 A side elevation of house reconstructed



Fig. 53 A outside view of house reconstructed

2. 聚落構造改善 事業

제주의 취락구조는 도로의 개설과 4.3항쟁 등의 사회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다. 취락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준 것은 일주도로의 개설, 4.3사건에 의한 중산간 마을의 소개,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들 수 있다.

일주도로의 경우, 1917년 해안지방을 環狀으로 연결하는 일주도로가 개설되면서 제주항, 서귀포, 모슬포, 성산포, 김녕, 조천 등에 지정항 또는 지방항이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임해 취락들은 근대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4.3사건의 발발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제주의 취락구조가 더욱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48년 4.3사건 발발 후, 토벌작전상의 이유로 중산간 마을의 주민을 해안마을로 소개시킴으로써, 해안취락구조의 집단화가 가속화되었다. 중산간 지역의 마을도 재건과정을 거치면서 散村형태에서 集村형태로 집단화되기 시작하였다³⁷⁾.

그리고 제주지역의 취락구조를 가장 크게 변화하게 한 것은 새마을운동의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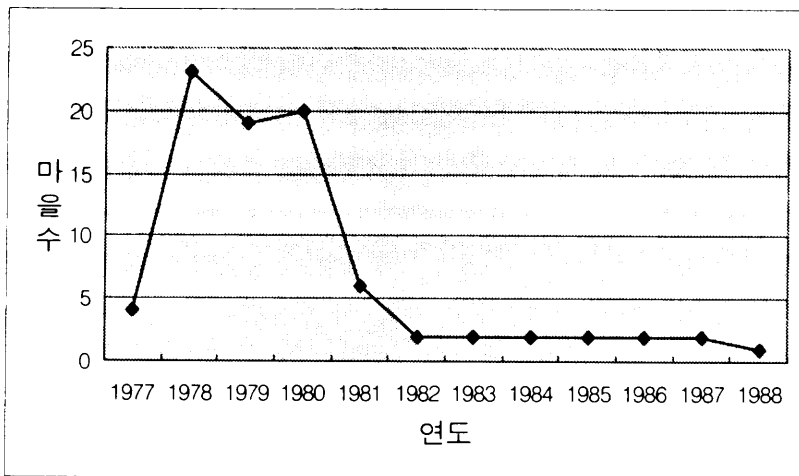


Fig. 54 A statics of improvement in village's structure

Fig. 54는 제주지역에서 실시되었던 연도별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실적을 나타낸 것으로, 1970년대 후반에 중점적으로 제주도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실시되었음을 알

37) 「寫眞으로 본 濟州商議 55年」, 제주상공회의소, 1955. p.16

수 있다.

1978년에 처음으로 착수된 이 사업은 이제까지 무절제하게 조성된 재래농촌을 마을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도로시설, 공동이용시설과 전형적인 초가주택을 내실과 외양을 구비하도록 하고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취락을 일정한 지역으로 옮겨 지역특성을 살리고 부락 단위 특별한 고유미, 전통성을 계승하면서 정취있는 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80년대를 지향한 근대농촌마을의 건설이다.

사업의 유형을 보면 크게 신촌형, 개선형, 정돈형 3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이는 각 구역이 실정에 맞게 적용되었다.

- 1) 신촌형 : 기존취락의 여건이 영농에 제약을 받는다면, 상습수해지구로서 마을유지가 어려운 상황, 교통의 불편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울 경우 새로운 택지를 선정하여 집단으로 마을을 옮겨 취락을 형성.
- 2) 개선형 : 무질서하게 조성된 기존마을 구조 즉, 안길, 공동이용시설, 주택 등을 현지 개선하는 유형으로 취락을 점진적으로 변형.
- 3) 정돈형 : 도로·공동이용시설 등이 어느 정도 정비상태에서 주택을 배치계획에 맞추어 개량.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교본지침³⁸⁾에 의하면 먼저 생활편익 및 생활시설 면에서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탁아소, 유치원, 이발소, 미용실, 공중목욕탕,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공동 축사 등 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마을 진입로의 입구 또는 중심부의 간선도로 교차지점에 배치하도록 하며 도로의 확장 및 포장에 있어서 도로 폭은 차도는 8m 이상, 보도는 4m 이상, 농로는 5m 이상으로 하여 순환우회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마을 안 길의 정비도 기존 도로체계와 유형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교정한다.

38) 「住宅改良教本」, 濟州道, pp.29~32



Fig. 55 A Plan of improvement Yong-He village's structure in Sa-G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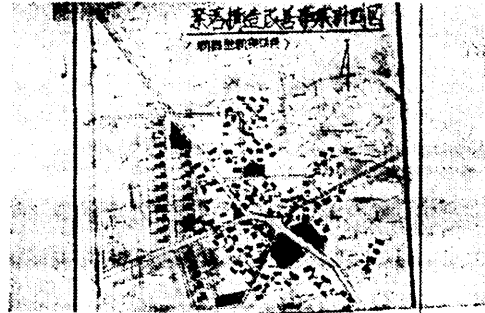


Fig. 56 A Plan of improvement Shin-hyung village's structure in Shin-Chang-Ri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도 현지개량을 원칙으로 하지만 급수지, 도시계획시설 확정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마을 구조의 수법에 따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배치, 계획하고 주택과 마을이 서로 조화를 이룬 녹화조성에 힘쓰고 부속 건축물인 변소, 헛간, 축사 등도 개량한다.

담장도 제주도 재료를 사용하여 정비하고, 도로변에는 1m 이상의 돌담을 쌓고, 도로변과 공휴지에는 편백·측백·하귤·동백나무등 본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로수를 심어 마을 녹화에도 힘썼다.

이러한 기준으로 77년에 귀일리 미로마을, 신창리 신흥마을, 위미2리 종정마을, 사계리 용해마을 등 4개의 마을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78년에 23개 마을에 15평형, 18평형, 20평형, 25평형으로 500동의 주택이 새롭게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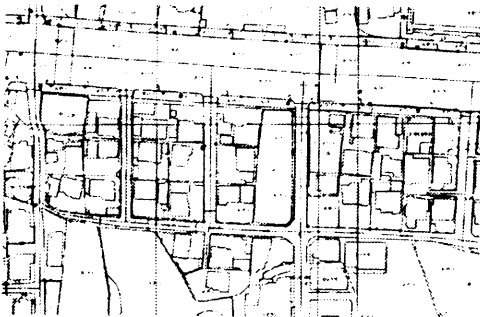


Fig. 57 A siteplan of house in improvement village (Located Sam-Yang-Dong)



Fig. 58 An airscape of house in improvement village (Located Sam-Yang-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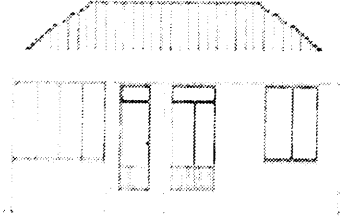


Fig. 59 A front elevation of house in improvement village (Located Sam-Yang-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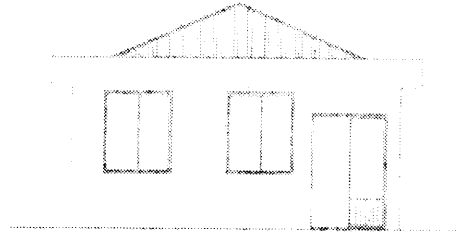


Fig. 60 A side elevation of house in improvement village (Located Sam-Yang-D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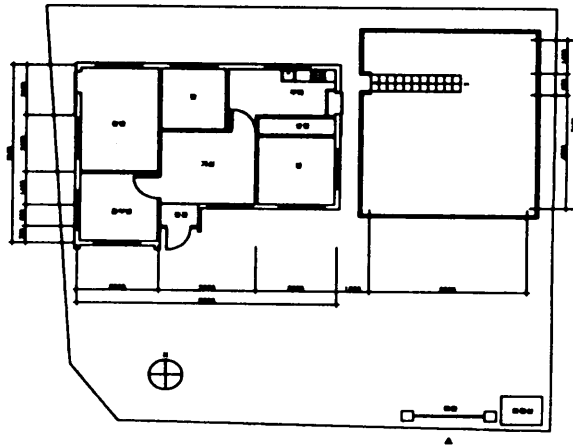


Fig. 61 A 1st floor plan of house in improvement village (Located Sam-Yang-Dong)

그 실례로 삼양2동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락 형태는 신촌형³⁹⁾이며, 내부 공간 구성⁴⁰⁾은 거실을 중심으로 방, 부엌이 있고, 외부는 파라펫 기와형 슬레이트 지붕으로, 제주 전통 주거 형식인 초가와 비슷한 입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붕 처마 파라펫 설치는 바람이 많은 본도만이 흔히 설치하는 것인바 외관상 특

39) "農村聚落構造改善과 住宅改良方案研究", 內務部, 1971

40) 제주시 삼양2동 2279-18번지 홍성관씨宅

색을 살리는 요소로서 기와형 스테이트, 후형기와, 다이야몬드형 스테이트, 금강칼라스톤 등 바람에 날릴 우려가 있는 이음재인 경우에는 파라펫을 설치하는데 높이를 내림새 부분만 가릴 수 있도록 낮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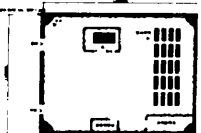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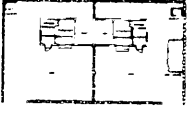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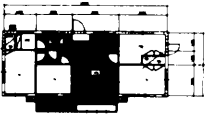

주택의 규모는 20평으로, 구조는 조적조로 되어있으며, 화장실은 외부에 두었다.

41) 「住宅改良教本」, 濟州道, p.16

VI. 結 論

1945년 이후 제주도의 주거건축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하여 왔다. 50년대에는 4·3사건이나 6·25라는 사회적 배경아래에서 피난민을 위한 난민주택이나 미국 주도의 원조에 의한 후생주택(재건축택)이 지어졌고, 60년대에는 사회가 안정되고, 혁명정부도 지역현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4.3사건의 해결인 4.3원주민 복귀 주택이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에 특이한 형태의 삼안식 주택이 지어졌다. 70년대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새마을 운동으로 인해 주택 개량사업,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이 시행되어 주거건축의 질적 향상에 힘썼다.

Table 4 The change of housing type from 1945's to 1970's

주택명	건축연도	평면도	사 진	특 징
4 · 3 성 터	1949			위치 : 북군 조천읍 와흘1리 낙성동 면적 : 15,400m ²
난 민 주 택	1959			위치 : 제주시 봉개동 1543-2번지 구조 : 목조 지붕 : 골합석 면적 : 40m ² (동당)
후 생 주 택	1959			위치 : 제주시 삼도1동 1239-4번지 구조 : 연와조 지붕 : 와즙 면적 : 59.50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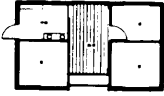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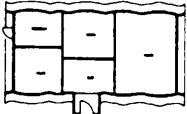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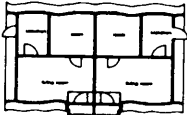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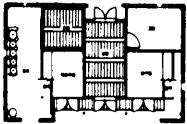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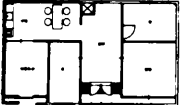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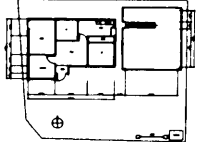

4 · 3 원주민 복귀 주택	1962			위치 : 제주시 봉개동 1954번지 구조 : 목조 지붕 : 함석 (스레이트 개량) 면적 : 42.97m ²
삼 안 식 주 택	1962	 1세대형  2세대형		위치 : 북군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목장) 구조 : 무근 콘크리트조 지붕 : 셸구조 면적 : 67.92m ² (1세대형) 45.12m ² (2세대형)
주 택 개 량 사 업	1937 (1977)	 개량 전  개량 후		위치 : 북군 애월읍 남읍리 1492번지 구조 : 목조 지붕 : 초가 (스레이트 개량) 면적 : 36.36m ²
취 락 구 조 개 선 사 업	1978			위치 : 제주시 삼양2동 2279-18번지 구조 : 조적조 지붕 : 기와형 스테이트 면적 : 68m ²

Table 4는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의 제주지역의 주거양식의 변화에 관하여 조사, 정리한 것으로, 난민 주택과 4.3원주민 복귀 주택은 목조에 함석지붕으로 되어있고, 후생주택은 연와조에 와즙으로 되어있으며, 삼안식 주택은 물결 모양의 아취가 연속된 무근 콘크리트 셸 지붕 형식이였다.

그리고 1970년대 주택개발사업은 초가집의 지붕, 방, 부엌, 옥외변소 등을 개량하였으며,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새로운 택지를 선정하여 집단으로 마을을 형성하였고, 주택 구조는 벽돌조에 파라펫 스테이트 지붕으로 조사되었다.

난민주택은 2세대가 거주하는 형태로 마당과 우영 밭 등 외부 공간은 기본적으로 제주의 전통초가 양식을 따르면서도, 주택 내부 공간과 지붕 재료, 마감 재료 등에 있어서는 근대적인 것을 지향했으며, 후생주택도 주택내부에 욕실과 화장실을 설계하는 등, 내부공간구성과 건축재료 면에서 전통초가양식에서 벗어나 서구적인 형식을 취하였다. 이에 반해 4.3원주민 복귀 주택은 건축 재료면에서는 근대적인 것을 사용했지만, 내부 공간 구성은 제주도의 전통 초가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삼안식 주택은 당시 우리 나라의 건축양식에서 상당히 새로운 형태로 구조, 외관, 공간구성 등에서 기존의 건축 양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혼란의 시기였으며 동시에 근대화로 이행해 가는 변혁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는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제주의 현대사에 있어서 잊혀진 시기였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의 사회의 모습과 주택에 대한 기록이나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미약하나마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의 사회변화 과정 속에서 발생한 주택들의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근대 주택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시기의 주택들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주택이었으며, 주택의 형태와 재료들은 현대적인 주택이었고, 평면구조를 보면 나름대로 제주의 실정에 맞게 건축된 것들이었다.

본 연구는 기존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들 주택에 대한 다양한 자료수집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역사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 주택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1953
「4.3은 말한다Ⅱ」
강만길,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제주문화, 1987
「광복제주 30년」, 제주도, 1974.
「노형교육 50년사」, 노형초등학교후원회, 1998
「대한주택공사 20년사」, 대한주택공사, 1979
「분단시대」,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숭실대학교
邊昇奎, 「濟州島略史」, 제주문화, 1992
「寫眞으로 본 濟州商議 55年」, 제주상공회의소, 1995
우락기, 「大韓地誌 I」, 濟州道
「웅진학습백과사전」, 웅진출판편집주, 1988
「住宅改良教本」, 濟州道
「濟州商議五十五年史」, 濟州商工會議所, 1991
- “農村聚落構造改善과 住宅改良方案研究”, 內務部, 1971
李岸, “韓國 近代建築의 發達科程에 寬限 研究”, 인하大, 1992.2
宋律, “韓國 近代建築의 發展過程에 寬限 研究”, 서울大, 1992
“濟州道 住居建築의 향토성에 관한 研究”, 濟州建築士會, 濟州建築 第2集
“濟州道建築의 地域性 再論”, . . . 양양김김 濟州道建築士會, 1997
- 「도시계획 40년사」, 제주시, 1994
「제주도 통계연보」, 제주도, 1981
「제주도 통계연보」, 제주도, 1984.
「제주도 통계연보」, 제주도, 1988
「제주도시기본계획」, 제주시, 1984.
「제주도 제9호」, 제주도, 1963
「제주도 제10호」, 제주도, 1963
「제주도 제14호」, 제주도, 1964

「제주도 제31호」, 제주도, 1967
「제주도 제34호」, 제주도, 1968
「제주도 제37호」, 제주도, 1968
「제주도 제45호」, 제주도, 1969
「제주도 제49호」, 제주도, 1971
「제주도 제53호」, 제주도, 1972
「제주도 제55호」, 제주도, 1972
「제주도 제71호」, 제주도, 1977
「제주도 제80호」, 제주도, 1986
「제주도 제87호」, 제주도, 1989
「제주도 제91호」, 제주도, 1991
「제주도 제93호」, 제주도, 1993
「제주시정 37년사」, 제주도
「제주실록, 제주도」, 1997
「제주연구의 오늘과 내일」, 제주도연구회, 제주신문사.
「통계청 인구주택 총 조사 보고서」
「한라연감」, 한라일보사, 1996
최재석, 「제주도의 친족조직」, 일지사, 1979.

제주신보 1954.1.26일자
제주신보 1954.3.28일자
제주신보 1955.2.18일자
제주신보 1959.2.13일자
제주신보 1959.4.4일자
제주신보 1962.6.10일자
제주신보 1962.11.13 일자
제주신보 1963.1.18일자